



시민들이 비가 내린 지난 9일 밤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다.

광주지역에 '러닝 열풍'이 불고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달리기 열풍이 불면서 광주 도심 곳곳에서 '크루(crew·동호회)'를 형성해 함께 달리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9일 오후 8시에 찾은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풍경이 펼쳐졌다. 200여명 시민이 함께 운동장 트랙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부모와 함께 운동에 나선 어린 아이들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땀을 흘리며 달리기엔 집중했다.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그룹을 이뤄 달리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김예지(여·31·서구 치평동)씨는 "6월 초까지 매주 나왔지만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9월까지 뛰지 못했다"며 "최근 날씨가 풀리고 선선해지면서 러닝을 다시 시작했다.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다"며 웃었다. 달리기 열풍이 부는 이유로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이날 7살 아들과 함께 뛰어 나온 정선화(여·54·서구 쌍촌동)씨는 러닝의 매력에 대해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어디서 해야할지 뭐를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더라. 하지만 달리는 특별한 도구나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광주서도 남녀노소 '러닝 열풍' 여럿이 함께 달리는 문화 확산 2030 기록 측정하며 SNS 공유 스트레스 날리고 불면증 사라져

같은날 밤 9시에 찾은 서구 유촌동 광주천변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종합운동장 역시 러닝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달렸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는 러닝 열풍의 배경에는 '크루 문화'가 확산한 영향이 크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운동장에서 유촌동까지 2km 가량을 달려왔다는 임모(34)씨는 혼자 달리기도 하지만 SNS에서 만난 크루와 함께 달릴 때도 있다고 말했다. 10여명에서 수백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달리고, 기록을 측정해 SNS로 공유하면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100여명의 크루와 함께 러닝에 나선 이혜종(56·광산구 우산동)씨는 5년째 '광주 달리기 교실'에 소속돼 함께 러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모여 러닝을 한다. 이씨는 "혼자 달리다보면 느슨해지기

도 하고 지루한데, 다함께 달리다보니 더 부지런해지고 기록에 대한 승부욕도 생긴다"며 "또 크루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전했다. 같은 크루의 정현호씨는 "현재 크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만 300여명이 넘는다. 10년 전 50명 정도였는데 반해 6배 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러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운동장 트랙을 크루들이 독점하거나 시터런(도심을 달리는 것)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정 씨는 "최근 뉴스에서 러닝크루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좋지 않다. 우리 크루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게 인접 트랙만 이용하는 등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닝 인구 증가하면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가장비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젊은이들의 인증문화가 장비경쟁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다. 한 러닝 크루원은 "카본(Carbon) 소재가 포함된 러닝화가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품귀현상이 발생해 추가비용 수십만원을 주고서라도 경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면서 "주변에서 다들 고가장비를 사고 있어 나도 뒤쳐질 수 없어 구매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글·사진·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부당전보 판결에도 이행의지 없는 빚고을의료재단·광주시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규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노조)는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의 부당전보 판결에도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빚고을의료재단과 광주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물리·작업치료사를 부서 폐쇄 등의 이유로 조리실 등

로 인사이동한 조치(2024년 4월 14일자 광주일보 7면)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도. 노조는 "중앙노동위는 이후 병원 측과 노동자 측에 화해를 권고했으나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복구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사측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물리치료사에게 환자이송업무 또는 권고사직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시가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방관

하고 있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빚고을의료재단이 부당전보 외에도 어용노조 설립, 집단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로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위탁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준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의료재단에서 불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정상운영하고자 한다면 재활치료실 재운영은 물론, 빚고을 의료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

## 이태원참사 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고흥·영암·영광군은 '방재안전직' 한 명도 없어

영암, 고흥, 영광 등 전남 3곳의 지자체에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운 것과는 반대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고흥, 영암, 영광 지역에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자체 12곳(강원 철원시, 경남 함양·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충남 금산시, 충북 진천군 등) 중 전남 지역이 25%를 차지했다. 정부가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고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서 밝힌 바 있지만 올해 8월 기준 전국 방재안전직은 절반 수준인 87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자체 공무원 전체 인원 31만 3296명 중 0.27%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과 증원 의지에 따라 현

원 배치 편차도 컸다. 서울시가 34명(0.30%), 경기도가 20명(0.42%),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0.25%)인 반면 대구(0.06%), 대전(0.08%), 울산(0.10%)광역시에는 2명에 불과했다. 방재안전직원은 중요성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으로 공무원 사이에서 기피 대상으로 알려져 인원수급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였다. 이는 승진 기점부여, 재난안전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방재안전직 정원이 동결된 채 신규 수요는 직렬 내의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정부는 참사 이후 재난관리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정작 지자체가 재난 역량을 갖추게 만드는 데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직렬 전환·복수직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

## 슬그머니 사라진 '서구톡톡'

주민소통 역할 못해...3년 10개월간 유지비 등 1억300여만원 지출

광주시 서구가 1억여원을 들여 만든 주민소통 플랫폼 '서구톡톡'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3년 10개월만에 '슬그머니' 운영을 중단했다. 서구는 지난달 30일자로 온라인 주민소통 플랫폼 '서구톡톡'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톡 채널 또한 비공개 처리하고 폐쇄할 예정이다. 서구톡톡은 2020년 11월 개설한 양방향 온라인 주민정책소통플랫폼이다. 정책 제안부터 토론과 생활불편신고, 온라인 투표 등 구성운영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서구는 지난달 12일 주민 호응이 없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하면서 서구톡톡 홈페이지를 단기로 결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톡톡 폐쇄 이유로는 문자하랑께·국민신문고 등 다른 사업과 기능이 겹친다는 점, 민원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효용성이 떨어지는 점, 이용률이 저조한 점 등이 꼽혔다. 그동안 서구톡톡에 접수된 주민 정책 제안은 114건 뿐이었으며,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생활불편신고 또한 136건 접수되는데 그쳤으며, 설문·투표·공모접수 기능은 각각 31건, 10건씩 이용되는 데 머물렀다. 서구톡톡은 지난 5월 8일 행정안전부의 2024

년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 1~4등급 중 4등급을 받아 다른 시스템과 '통합할 권고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서구는 서구톡톡 개발·운영 비용으로 3년 10개월동안 총 1억 300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비는 7610만원(홈페이지 구축비 6350만원, 추가 개발비 1260만원), 유지비는 해마다 719만원씩 지출했다. 일각에서는 서구가 역대 예산을 쏟고도 효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개선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구멍이 담 넘듯' 홈페이지를 폐쇄한 데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구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 폐쇄 결정을 내리자 8일만에 '제안하기' 기능을 중지시키고, 이후 열흘만에 홈페이지마저 폐쇄했다. 폐쇄 소식은 서구톡톡 홈페이지에만 올라왔으며 별도의 공지, 공고, 배너광고 등은 전무했다. 서구 관계자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3분기를 마치는 시점에 맞춰 폐쇄를 결정했다"며 "주민 정책 참여로서 기능 자체는 '문자하랑께', '국민신문고' 등 다른 창구를 통해 더욱 빠르게 접수할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